

북구, 스마트 복지 지원 사업 선정

안전점검단 운영·취약가구 안전지킴이 등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정보통신기술, 지역공동체 등을 활용한 읍면동 서비스 개선모델을 개발해 복지·안전 시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다.

공모 결과 전국 7개 시도에서 12개 지자체가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광주시에서는 주민주도 안전마을 및 스마트케어 복지체계 구축 모델을 제시한 북구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북구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등 단위 재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나선 계획이다.

우선 통장단, 자율방재단 등 민관협의를 통해 구성된 안전점검단을 읍면동에 시범 운영해 위험시설물 점검, 계절 재난 예방, 취약가구 방문, 지역 안전 문제 발굴 등 마을 안전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전기·가스·보일러 안전 점검, 생활안전키트 지원, 생활안전 취약주택 집수리 등 복지·안전 취약 가구 안전지킴이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시키어플·스피커 제공, 복지행정 플랫폼 도입 등 맞춤형 스마트케어 체계 구축으로 안부확인, 정서지원 등이 필요한 1인 취약 가구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연형안 기자

서구 '마을미디어 클래스' 교육 운영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소통 확대·마을미디어 활성화



서구가 이웃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마을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서구마을미디어센터에서 '마을미디어 클래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구는 이달 초 미디어 콘텐츠로 이웃과 소통하고 싶은 서구민과 마을미디어 공동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15명의 수강생을 모집했다.

그리고, 미디어 제작 관련 전문가 임지성 감독을 강사로 초빙해

▲마을미디어 이해 및 개념 ▲마을미디어 영상기록의 기획 및 편집 ▲마을미디어 쇼츠 영상 제작 및 발표 ▲마을미디어 쇼츠 영상 편집의 응용 등 총 6차례의 강의를 진행한다.

서구는 최신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 센터의 전문 미디어 장비와 시설을 활용해 수강생들이 다양한 미디어 영상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선주 기자

광산구, 보건의료계획 평가 복지부장관 표창

건강격차 해소 방안·외주인 주민건강관리 등 우수 평가

광산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건강과 관련된 주민이 겪고 있는 문제, 요구 등을 반영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중장기 계획(4년 단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전국 229

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제8기 중장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23년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지자체 16곳을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가 가장 높은 점수로 유일하게 최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광산구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방안 및 외주인 주민을 위한 건강관리, 보건-복지 연계 강화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동기 기자

순천경찰, 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예방 캠페인



순천경찰서는 20일 순천성동토터 일원에서 순천시민들의 생명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사망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여 펼친 교통안전 캠페인은 교통량이 많은 성동토터에서 출근 시간 운전자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노관규 순천시장, 임종운 순천교육지원청장, 박주영 바르게살기운동 순천시협의회장,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민간봉사단체 등 약 300여 명이 함께했다.

교통사고 주요 원인 과속, 무단

횡단, 음주운전 금지 등을 당부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관련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

아울러 바르게살기운동 순천시협의회회는 교통안전 캠페인 이후에는 성동토터 주변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활동도 전개했다.

김중호 순천경찰서장은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보다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시민의식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조준준 기자

“가격 거품 꺼지면 피해, 염전에 고스란히”

소금값 고공 행진에 ‘한숨’...“정부, 논란 부추기지 말고 어민 도와야”

“소금 값이 올랐다고 염전 사장이 당장 나아지는 것이 아닌데...”

20일 오전 전남 신안군 임자도 1만 4000평 부지 한 염전. 이날 오후부터 다음날까지 전남 지역에 최대 60mm의 비소식이 예보되면서 염전 노동자들은 말려둔 소금을 거둬들이는 작업에 한창이었다.

전날 각 증발지마다 깔아둔 염도 비중 25도의 소금물은 하루 사이에 하얀 결정이 맺혔다. 염부들은 2m 폭 소금 깔개로 하얀 결정을 쓸어내 채 염기로 옮겨 담은 뒤 걸러져 나온 소금들을 흰색 수레에 옮겨 창고로 날랐다.

바지런한 염부들을 바라보는 이곳 염전 대표 이정심씨는 속이 타들어 갔다. 염전 옆 창고에는 한 달 전부터 거둬들이는 소금이 벌써 100t 가량 쌓

여있지만 소매상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격 폭등과 사재기. 이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은 먼나라 이야기다.

도리어 짙은 비소식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소식이 겹치면서 일어난 소금 폭가 현상이 이씨를 괴롭히고 있다. 부족한 물량으로 거래처 납품량을 겨우 맞추는 상황에 혹여나 소매 전용 물량이 확보된다고 해도 그 가격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이날 비소식이 예보되며 일찍이 거둔 소금의 양은 기준 450kg 들이 소금 수레 약 8대 분량에 불과했다. 이틀에 한 번 팔로 소금을 거둬들이는 이곳 염전에서는 평소 한 번 수확 할 때마다 수레 10대를 채우나 이마저도 이상기후 탓에 연이어 감소세다.

소매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농협의 수매가가 치솟았지만 이는 도리어 염전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날 기준 신안 지역 농협의 천일염 수매가는 20kg 한 포대 당 최고 2만 5000원으로 기록됐다. 전년도 같은 달 대비 1만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소금은 썩지않으며 사용량이 대체로 제한적인 탓에 잦은 재구매가 이뤄지는 품목이 아니다. 이같은 특성이 무시된 채 시장에 거품 낀 가격으로 소금이 많이 풀릴 경우 훗날 가격 폭락과 생산량 조절 등 타격은 고스란히 염전으로 돌아온다.

이씨는 요즘치는 소금 시장 한복판에서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더욱 힘들다고 토로한다. 특히 치솟는 인건비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

출 문제는 먼 미래 수익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는 “소금 산업은 인권과도 일부 연관된 만큼 인건비가 중요하다. 소금 자체만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에 전로 염부의 인건비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출”이라며 “이밖에 방사능 베르셀 기준치 등 수산물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준이 있음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시기보다 윤리적인 생산과 판매가 절실하지만 과다하고 뜬소문으로 염전의 속살이 극심하다”며 “천일염 사업 초기 세금까지 들어가며 염전을 지원했던 정부가 어민들의 고통을 방관해선 안 된다. 국민과 어민 안심이 확보되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신안=박정래 기자

광주시내버스 노사, 기본급 3.5% 인상 등 잠정 합의안 도출

대체 공휴일 유급 적용·노사 합의 시 정년 연장 등

광주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올해 임금·단체협의를 잠정 도출했다.

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 지역 버스노동조합은 지난 1월부터 사측과 9

차례 자율 교섭을 벌인 끝에 최근 임금 인상·단체 협의를 도출했다.

잠정 합의안은 4가지다. 구체적으로 ▲기본급 지난해 대비 3.5%인상 ▲대체 공휴일 유급 적용 ▲노사 합의 시 정년 연장 ▲평가 휴가(경조사)

일수 신설·확대다. 노조는 조합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21일 오전 5시까지의 찬반투표를 벌인다. 노조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하면 사측과 합의서를 작성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투표 이후 시내버스 노사가 임단협을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동구, 청년친화 현정대상 ‘소통대상’...광주 자치구 최초

청년총회·아이디어 경진대회·일자리 지원 등 높은 평가

동구는 국회 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 주관 제6회 청년친화 현정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광주 5개 자치구 최초로 ‘소통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청년친화 현정대상’은 청년들을 위한 탁월한 업적으로 청년들의 삶을 위해 노력한 기관들의 업적과 공로를 표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책 ▲소통 ▲종합 3개 분야로 나눠 청년 친화 지수를 기준으로 최고경영자·대학교수·청년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동구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청년참여위원회 운영 ▲청년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청년총회 개최 ▲빈집 청년창업 채

움 프로젝트 지원 ▲동구청장배 청년창업 전국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청년인턴 일자리 지원 ▲청년 니즈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청년정책의 주도적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오는 9월 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릴 ‘제7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 특별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

‘2024대입 정보 제공’...전남교육청 진로진학 아카데미

전남대 입학전형 방법·학기부와 학생부종합전형 등 제공

2024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의 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아카데미가 펼쳐진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진로진학상담센터와 5개 권역별 센터에서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가 운영된다고 20일 밝혔다.

‘2024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대입 지원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열린다.

아카데미는 ‘2024~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이해’를 비롯해 ‘대학 입시 용어’ ‘입시정보의 탐색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또 ‘전남대 입학전형 방법’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부종합전형 이해’ ‘교육과정’ ‘전국연합 모의고사 분석’ 자료가 제공된다.

9월 실시 예정인 2기 아카데미에서는 초·중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 초점을 맞춰 ‘인공지능 세대를 위한 진로·직업 탐색’ ‘고교 분석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대입 연계 안내’ 등의 주제가 다뤄진다.

시교육청 ‘光탈페(광주학생탈테트페스티벌)’ 추진

학생참여 중심 예술 활동 기회 제공...학생 주도 오디션

광주시교육청이 학생 주도 오디션 프로그램 ‘光탈페(광주학생탈테트페스티벌)’를 본격 추진한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光탈페’는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학생주도형 예술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는 학생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히 광주고등학교의회가 중심이 돼 학생들이 다양한 끼와 재능을 펼치고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학생주도형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학생의 흥미·소질을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활력을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 중심의 예술 소통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光탈페’는 올해 첫발을 댄다.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K-Pop 댄스, 밴드, 보컬, 연주, 뮤지컬, 국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광주의 학생들이 예술적 재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K-Culture를 대표하는 예술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구글폼(<https://url.kr/dy9ti7>)을 통해 7월6일 22시까지 가능하다. 예선(오디션)을 거쳐 9월 2일 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야외무대에서 본선(페스티벌)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조준준 기자

순천국유림관리소

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20일 직원 및 국유림영양단 등 산림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강사로 초청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한상범 경영교육부장은 참석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을 강의했으며, 다양한 산림재해 예시와 예방 대책을 설명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박경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위험성 최소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예방대책이 중요하다”며 “산림사업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재해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순천=조준준 기자